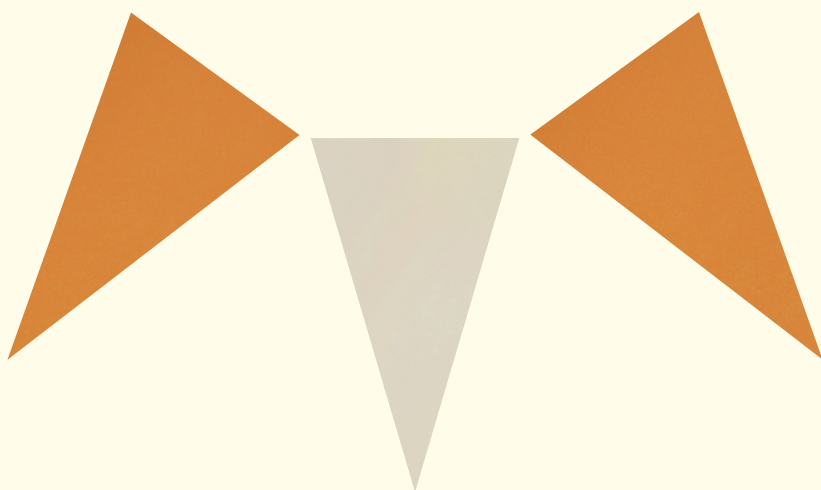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센터는

시니어사회공헌센터는 공익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시민과 민간비영리단체 및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열린 마당입니다. 또한, 풍부한 삶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고령 시니어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경제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참여하는 기쁨, 나누는 행복이 가득한 곳, 시니어사회공헌센터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014 시니어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시니어드림페스티벌 결과보고서



목 차

1 시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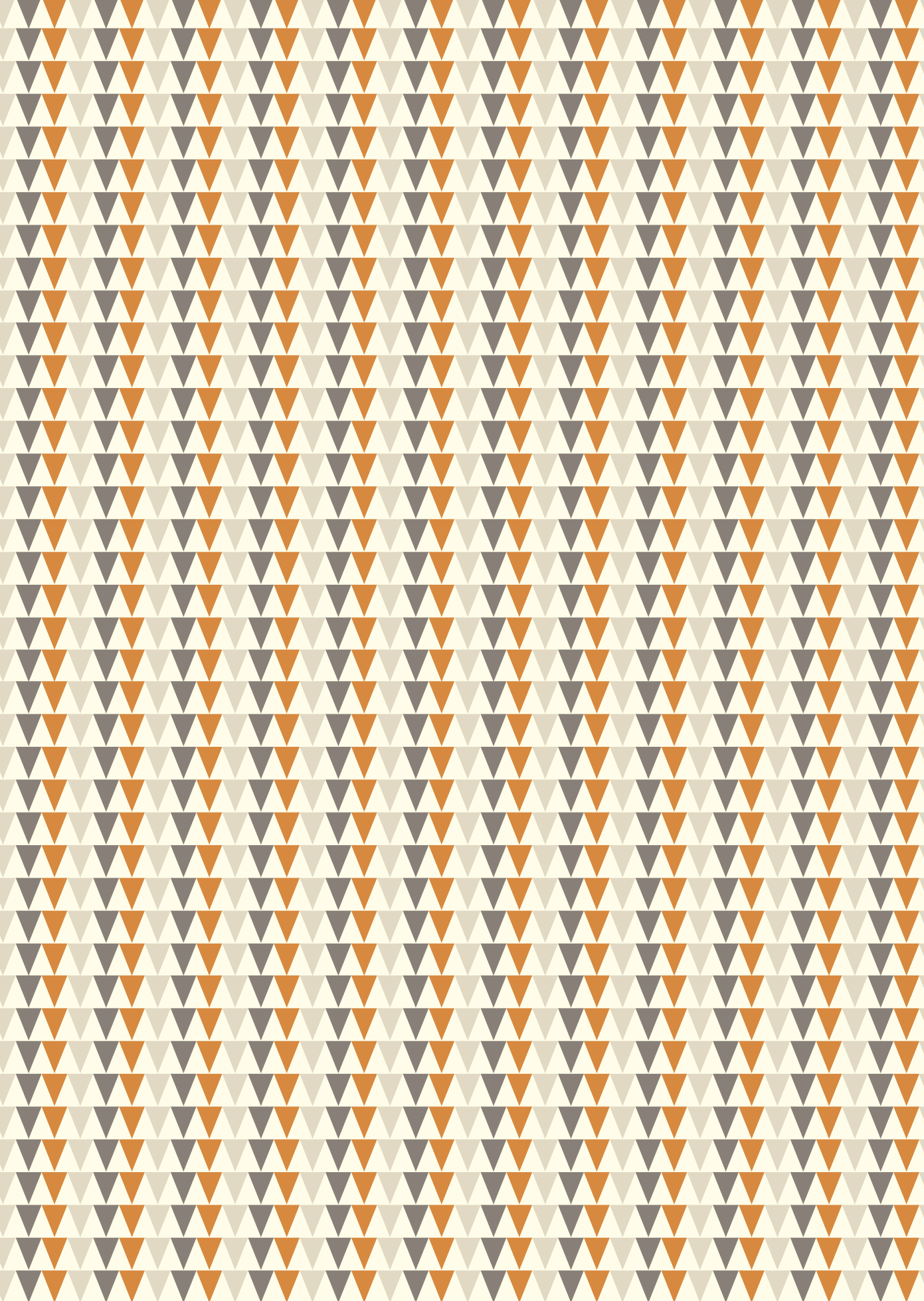
사업배경	07
사업목적	09
실행방법	10

2 운영과정

전체 일정	13
시니어 아이디어 공모	14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	18
최종 아이디어 선정	22
중간워크숍	24
청년 Doer 모집	26
본선 (프로젝트 10주)	28
결선 대회 및 시상	36

3 총 평

참가자 평가 및 후기	47
총평 및 제안	55





SECTION 1

시 작

사업배경

사업목적

실행방법



사업배경

최근 통계청¹⁾의 발표를 보면 한국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된다. 그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데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할 부분은 베이비붐 세대²⁾이다.

그 이유는 첫째,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5%를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는 점과 둘째, 2010년을 기점으로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이전 노인 세대와 비교해 교육 및 자산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회통합 및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높은 특징³⁾을 보인다.

이 세대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욕구를 가진 새로운 집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보유하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시각으로 이들을 인식하면서 혁신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고령 인구의 확대는 다(多)세대 사회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어 ‘세대 통합’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것이다. 이는 여러 세대가 공존함에 따라 서로 다른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1) '2014 고령자통계' (통계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인구의 12.7%로, 2008년 10%를 넘어서 후 2026년 20%에 접어들 전망이다.

2) 우리나라의 1955년~1963년 사이에 출생한 동년배 집단

3) 김정현 (2012)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인구학적, 사회적 변화를 주시하면서 2007년부터 베이비부머의 인생 설계⁴⁾ 및 세대 간 소통기회 확대를 위한 세대 통합 사업⁵⁾을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니어의 사회공헌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공헌모델 발굴을 위해 시니어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시니어의 욕구와 능력에 주목해 시니어가 꿈꾸는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더불어 실행 부분에 청년 세대를 결합시킴으로써 세대 간 공감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2013년 제1회 공모전을 통해 세대공감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2014년 제2회 공모전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시니어 사회공헌 활동의 필요성과 목적에 공감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4) 행복설계아카데미(2007~2014년 진행)

5) 세대공감 시리즈 : 동네한바퀴in성남(2013), 동네한바퀴in종로구(2014), 사랑에 빠진 과학 캠프(2014)



사업목적

시니어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 기회 제공

- 베이비붐 은퇴자, 전문직 시니어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
- 베이비붐 세대가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분야 소개

시니어 사회공헌모델 발굴

- 베이비붐 은퇴자, 전문직 시니어들의 성향과 욕구에 맞는 사회공헌모델 제시
-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제2의 인생을 사회 공익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발굴
- 시니어들이 이웃과 사회에서 본인의 역할과 가치 발견

세대통합 문화 확산

- 다양한 세대와 소통의 장을 마련
-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시니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 마련
- 시니어 세대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 확산

▼
실행방법





SECTION 2

운영과정

전체일정

시니어 아이디어 공모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

최종 아이디어 선정

중간워크숍

청년Doer 모집

본선(프로젝트 10주)

결선 대회 및 시상



▼
전체 일정

4월	4/9~5/15	시니어 사회공헌 아이디어 접수
		• 웹페이지 오픈, 온/오프라인 홍보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아이디어 모집
5월	5/19	1차 심사 통과 아이디어 발표
		• 아이디어 심사
	5/23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
		• 아이디어 구체화, 실현화 및 실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오프라인 워크숍 진행
6월	6/2	최종 선정 아이디어 발표
		• 최종 아이디어 6건 발표
	6/3~6/29	실행참가자 청년Doer 모집
		• 아이디어 실행을 함께할 청년 모집
	6/19	중간 워크숍
		• 최종 아이디어 팀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실행 준비를 위한 워크숍 진행
7월	7/5	본선 오리엔테이션
		• 시니어와 청년Doer의 첫 만남, 팀 빌딩/팀별 아이덴티티 구축, 팀 지원금 지원
	7/12	본선 워크숍
		• 팀 빌딩, 팀별 논의(팀 비전, 미션, 프로젝트 진행 계획표, 예산)
	7/30	1차 중간점검
		• 프로젝트 실행 과정 및 속도 점검, 소셜 미션 재확인, 세대통합 과정 확인
8월	8/27	2차 중간점검
		• 팀별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 확인, 최종 점검
9월	9/13	결선대회
		• 결과물 발표 및 시상



시니어 아이디어 공모

① 공모주제

“당신의 꿈이 이웃(옆집, 동네, 지역사회 등)을 풍요롭게 합니다”

- 시니어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이웃과 사회를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
- 나(시니어)의 꿈과 흥미를 활용하여 이웃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② 참여대상

- 40대 이상 시니어 개인 혹은 팀(3인 이하)

③ 혜택

- 예선 진출팀
 -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 참여 기회, 기념품 제공
- 본선 진출팀
 - 프로젝트 실행지원금 250만 원 지원(총 6팀 선정)
 - 아이디어 실행 관련하여 주최 측이 기획한 행사 지원(워크숍, 자문단 컨설팅 등)
- 시상
 - 1등 300만 원, 2등 200만 원, 3등 100만 원, 장려상 부상, 인기상 부상

④ 홍보

-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 포스터, 브로셔 배포, 유관기관 공문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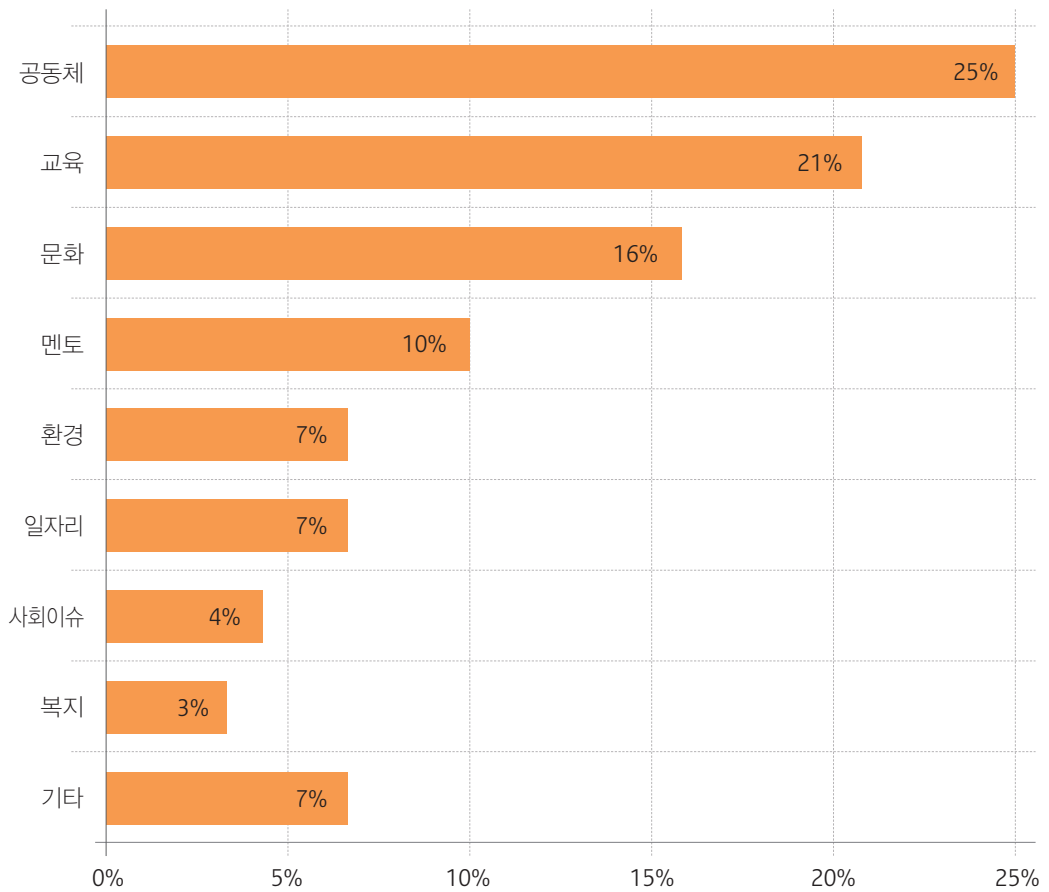


<포스터>



<리플릿>

⑤ 아이디어 모집 현황



※ 사전에 별도의 범주를 제시하지 않았고, 응모한 아이디어 내용에 따라 분류

⑥ 아이디어 심사 기준

- 공익성
 - 아이디어 실행에 따른 공익적 가치가 분명한가
 - 아이디어 실행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 실현가능성
 - 문제의식과 그 해결방안이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가
 - 제시된 방안이 실제 적용될 수 있는가
 - 협업을 통해 구현이 가능한가
- 창의성
 - 자아실현에 기반을 두었으며 개성이 있는가
 - 문제의식 및 해결 방식이 독특하고 새로운가
 - 직간접적인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기존의 방식을 새롭게 적용하거나 개선했는가

⑦ 1차 아이디어 선정

- 13건의 아이디어 선정 (최종 아이디어 6건의 약 2배수)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

① 개요

- 일시: 2014년 5월 23일 (금) 18:00~21:00
- 장소: 믹싱제너레이션
- 대상: 1차 심사 통과 아이디어 13팀, 컨설팅 자문단

② 목적

- 아이디어 점검
 - 소셜미션, 혁신성, 추진전략 점검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의미 확인
- 아이디어 구체화
 - 아이디어를 액션으로 전환하는 방법 구상 및 팁 제공
- 실행계획서 준비
 - 최종 심사 평가 대상이 되는 실행계획서 작성 안내

③ 내용

- 사회공헌 국내외 사례안내, 워크숍(자문가 그룹 면담을 통한 컨설팅)

④ 특징

- 공모전의 목적과 가치를 지원자가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본격적인 컨설팅을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사회혁신, 사회공헌 사례 소개를 통해 위밍업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

• 자문단의 컨설팅

- 내용 : 시니어의 아이디어 구상을 추진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문단의 상담 및 조언
- 방식 :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하여 로테이션으로 진행

구분	내용	자문단
session 1	실행계획서 작성 준비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3인의 시니어 자문단과 함께 아이디어 구체화 작업 진행	나종민 이한철 한석규
session 2	내부역량 분석 최종 아이디어 팀으로 선발될 경우 함께 하게 될 청년Doer와 세대공감, 팀 빌딩을 위해 개인의 내부역량을 분석하는 작업 진행	이창준

자문단 소개



나종민

- 현 바라봄사진관 대표
- 현 송석복지재단 이사
- 전 Micro Strategy 지사장



이한철

- 현 사회혁신기업 보잉 대표
- 전 인터넷 포털 신규사업개발팀장,
광고대행사기획팀장



한석규

- 현 (사)시니어사회공헌 렛츠 대표
- 전 서울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장
- 전 조흥은행 부행장



이창준

- 현 구루피플스 CEO-교육학 전공, 경영학 박사
- 100여 개 기업 및 관공서 대상 리더십 관련 프로그램 진행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 진행





최종 아이디어 선정

① 심사 기준

- 혁신성
 - 아이디어 실현 방안이 기존의 방식을 보완하고 새로움을 제시하는가
 - 문제의식을 드러낸 방식이 돋보일 정도로 뛰어난가
- 실현가능성
 -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계획과 가능성이 있는가
 - 아이디어를 협업을 통해 실행할 계획이 있는가
- 사회파급성
 -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아이디어인가
 - 아이디어가 실현될 경우 사람들이 혜택이나 효용을 누릴 수 있는가
 - 아이디어가 해당 분야 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다른 시니어들에게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가

② 최종 아이디어 선정(6건)

No	제목	내용
1	장애인의 도시텃밭	장애인의 새로운 직업훈련 기회 제공을 위한 도시농업 공간 설계 및 활동
2	찾아가는 이야기 멘토링으로 청소년에 비전을!	청소년의 학업, 진로, 성격 등의 고민 상담을 위한 참여형 워크숍 진행
3	그림이 있는 나의 이야기	시니어를 대상으로 시, 수필, 그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기록하는 작업 진행
4	남한산성 꽃할매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재발견하고 지역 커뮤니티 조성
5	세상을 바꾸는 상담카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
6	동네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권리보증시스템	법의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스템 구축



중간 워크숍

① 개요

- 일시: 2014년 6월 19일 (목) 14:00~18:00
- 장소: 카페 더 웨이 (쌍크카페)
- 대상: 최종 아이디어 선정 6팀

② 내용

- 사회공헌 및 세대 공감에 대한 이해, 2013년도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참여팀과 만남

③ 특징

- 청년Doer와 팀 구성 전 세대 공감 교육
- 2013년도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참가자들의 경험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사전 준비작업

구분	시간	세부내용
오프닝	14:00-14:10	시니어드림페스티벌 경과 공유 워크숍 일정 소개 최종 아이디어 선정 팀 소개
강연	14:10-15:10	사회공헌을 통한 세대공감 사례
휴식	15:10-15:20	휴식시간
멘토와 만남	15:20-17:00	2013년도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참여팀과 만남
Q & A	17:00-17:30	질의응답 시간
클로징	17:30-17:40	추후 일정공지

중간 워크숍 진행 사진



청년Doer 모집

최종 6개의 실행 아이디어가 선정된 후, 각 아이디어를 함께 펼쳐 나갈 청년Doer⁶⁾를 모집하였다.

① 공모내용

“아이디어를 달리게 하는 힘! Ten-Week-Run Happy Together”

- 최종 아이디어 6개 중 2개(1순위, 2순위 구분) 선택하여 지원

② 공모대상

- 사회공헌에 관심 있는 2,30대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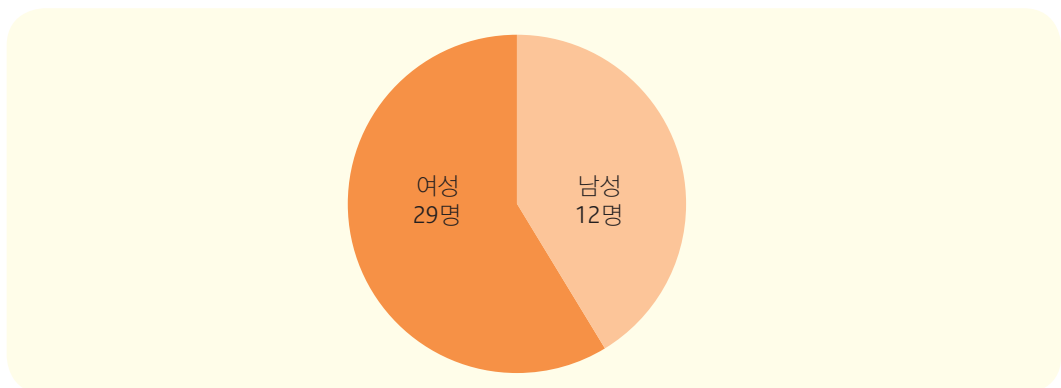
③ 홍보

-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포스터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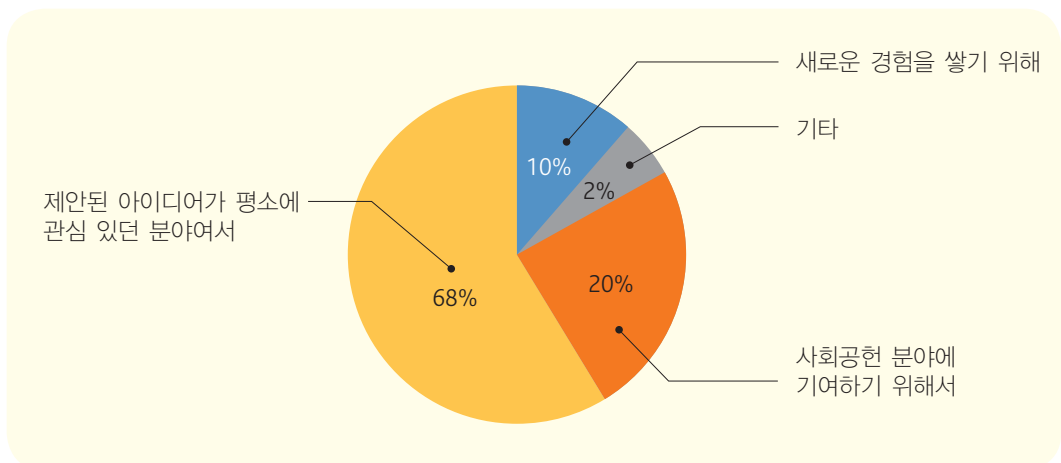


6) 청년Doer :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아이디어 실행에 참여할 청년들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프로젝트를 함께 리드하는 구성원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Doer'라는 명칭으로 모집하였다.

④ 지원자 현황



⑤ 지원동기



⑥ 최종 선정 결과

- 청년Doer 총 18인 선정 (경쟁률 2.3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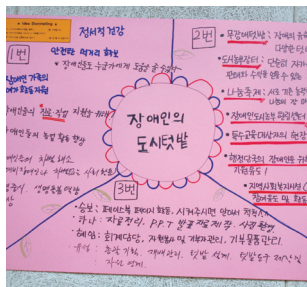
본선

① 오리엔테이션

- 일시: 2014년 7월 5일 (토) 12:30~18:00
- 장소: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
- 대상: 최종 선정 아이디어 제안자(시니어), 청년Doer
- 내용: 아이디어 공유, 팀 빌딩 및 팀별 아이덴티티 구축
 - 팀별 프로젝트 비용으로 250만 원 지원, SNS 내 그룹 형성

구분	시간	세부내용
사전 OT (※청년Doer만 참여)	12:30~13:30	First Impression 페스티벌 안내 및 자기소개
본선 OT (1)	13:30~14:00	First Impression 아이스 브레이킹_주사위는 던져졌다!
	14:00~14:10	오프닝 환영사, 프로그램 경과보고
	14:10~14:50	팀별 논의 1 아이디어 스토리텔링
	14:50~15:00	휴식시간
본선 OT (2)	15:00~16:50	팀 빌딩 점점漸漸하나
	16:50~17:00	휴식
	17:00~17:50	팀별 논의 2 팀 아이덴티티_우리는 팀이다! 발표_팀 소개
	17:50~18:00	클로징 지원금 수여식

본선 오리엔테이션 진행 사진



② 본선 워크숍

- 일시: 2014년 7월 12일 (토) 13:00~18:00
- 장소: 카페 더 웨이 (쌍크카페)
- 대상: 최종 선정 아이디어 6팀
- 내용: 팀 비전, 미션, 일정(예산 포함) 구체화 작업

구분	시간	세부내용
오프닝	13:00~13:10	Opening 워크숍 일정소개
강연	13:10~14:30	Celebrate Difference 더불어 성장하는 삶, 그 출발점에 서다
휴식	14:30~14:40	Break time
워크숍	14:40~15:00	Start 워크룸 선택 게임
	15:00~17:00	Big think 팀별 논의: Ten-Week-Run! • 합의된 팀 비전, 미션, 목표(10주 후), 일정, 예산, 진행 상황, 6계명 등
발표	17:00~17:30	Presentation '5분으로 말하는 10주 이야기' (팀 발표)
	17:30~18:00	Comment 코멘트

본선 워크숍 진행 사진



③ 중간점검 (총 2회 진행)

- 프로젝트 실행 과정 및 속도 점검
 - 프로젝트 실행 전반(전체 계획 대비 실행 속도, 예산, 목적에 맞는 방향성)에 대한 점검
 - 최종 목표물에 대한 적합한 실행 활동 점검
- 소셜미션 재확인
 - 소셜미션 확인 및 구체화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의미 확인
 - 사회공헌활동의 가치에 대한 격려, 실행에 따르는 애로사항 공감과 팁 제공
- 세대통합 과정 확인
 - 팀 내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수준, 과정 점검
 - 시니어, 청년Doer 간의 세대공감 및 통합수준 점검

1차 중간점검

- 일시: 2014년 7월 30일 (수) 10:00~18:00 / 프로젝트 실행 4주차
- 장소: 허그인
- 대상: 최종 선정 아이디어 6팀, 자문단 4인

• 점검내용

팀명/아이디어명	진행상황	자문단 코멘트
City Farmer 장애인의 도시텃밭	• 텃밭개장식 관련 기획 회의 진행 • 필요물품 구상 및 지원인력 섭외 • 장애인부모회지원팀 대상으로 관련 교육 진행 • 사업 홍보 진행	• 전략적인 홍보의 필요성 및 관련 방안 논의 (프로젝트의 취지를 담은 홍보 영상 제작 등)
보물찾기 찾아가는 이야기멘토링으로 청소년에 비전을!	•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기획회의 및 일정 확정 • 지역아동센터원장과의 면담 및 지역 아동센터 아동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총 19명 대상/3회 진행)	• 멘토링 내용 구성 재점검 • 전문적인 상담이 아닌 시니어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진행함으로써 타 멘토링과의 차별성을 둘 것 •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지속성을 위해 정형화된 프로그램 설계 필요
청춘마중물 그림이 있는 나의 이야기	• 수업 및 워크북 제작 등 기획 회의 진행 • 시니어 수업 진행 중 (장소: 서교동 시니어 아카데미/ 참여인원: 15명/진행기간: 6주) • 역할혼선 및 그에 따른 시니어와 청년 Doer간 의견 차이	•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취지/목적에 대한 설명 • 시니어와 청년Doer간의 역할 정리가 필요 • 전년도 참가팀들의 진행과정에 대한 이야기(세대 공감 과정 등)
세.바.카 세상을 바꾸는 상담카페	• 청소년 설문지 내용 구상 작업 •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진행 • 현장탐방 진행(소나무길 삼무곡, 시민청, 믹싱 제너레이션 등)	• 설문지 해석의 중요성 강조 • 타 상담 기관과 차별성을 두는 것이 필요
꽃할매 남한산성 꽃할매	• 다문화이주여성들의 요리수업 진행을 위한 꽃할매 팀의 사전 교육 • 다문화이주여성 요리수업 진행 • 마실장터에서 부스 운영 및 홍보 영상 제작 기획	• 진행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선정 및 범주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음 • 홍보의 목적 및 활용에 대한 논의
CLAW 동네변호사와 함께하는 법권리보증시스템	• 웹사이트 제작을 위한 웹디자인 구상 회의 • 변호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안서 작성 중 • 웹개발자와 미팅(웹제작 기획 회의) • 시니어와 청년Doer들과 일정 조율이 어려움	• 지속적인 홈페이지 유지비용 방안 기획 • 기존의 법률시장에 대한 영향력, 혜택 등 원천에 대한 명료화 수립 필요함 • 청년Doer의 정확한 역할(과업)이 필요

2차 중간점검

- 일시: 2014. 8. 27 (수) 12:00~18:00 / 프로젝트 실행 8주차
- 장소: 마이크임팩트
- 대상: 최종 선정 아이디어 6팀, 자문단 4인
- 점검내용: 각 팀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 보고 및 결선대회 발표 내용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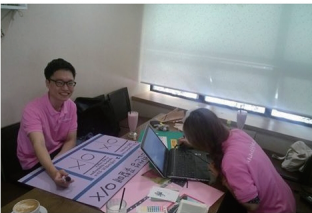


④ 프로젝트 진행 과정 공유 - SNS 활용

- 비공개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공지사항 안내 및 각 팀의 진행 상황, 예산 지출내역 공유

영소원
9월 9일

<남한산성 꽃밭에 활동보고>
지난 금요일 제2회 남한산성 마실장터를 앞두고 남한산성 꽃밭에 팀이 만났습니다. 그 동안 성남시는 향토식물 문화와 유물기 문화로 큰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요. 지난 6월 26일 남한산성이 두리나라에서 11번째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이를 계기로 남한산성 지역 문화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주민들의 역할을 한 데 모으는 장터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마실장터라는 하나의 장소로 지역주민들의 역할을 한 데 끌어모으기 위해 그 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요. 제2회 마실장터의 다양한 부스 운영을 위해 포도남한산성 바우징기 mapping 및 cart 제작을 하고, 남한산성 주변의 많은 시민이장터인과 다른 화사들을 만났습니다. 두근두근, 제2회 마실장터의 활기찬 모습을 상상하며 마실장터 전 날 밤, 카페에서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했답니다.



이슬기
9월 25일

[경춘마중물 7차 보고]
어느덧 주석이 모임, 제책 결선대회도 끝났네요. 역시 어느덧 종강을 앞둔 지난 26일 '그림이 있는 나의 이야기' 수업은 그간의 정을 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코희 선생님에서 전술한 이야기들로 수업을 끌어가서서 어르신들의 더 큰 공감을 얻으셨죠. 출간기념회를 위해 조금 어렵게 작업한 송환별도 완료된 상태이고 서로 정도를 더 조금 더 편안했던 수업은 송거문 노래와 레크리에이션으로 마무리를 더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소중한 출간기념회도 대신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가족과 친구들들도 조금씩 소박한 파티를 계획하고 있죠.



점소라님이 [새 바카 팀]2014년 8월 14일 13차 활동에 사진들 추가했습니다.
8월 16일

8차 달달 활동 사진이에요~



좋아요 · 댓글 달기

2명이 좋아합니다. 27명이 읽음

김정현
7월 10일

첫 모임이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좋아요 취소 · 댓글 달기

최정님, 하세님 외 2명이 좋아합니다. 30명이 읽음

Yujung Ok · 보물창고 24일 · 7월 15일 오후 11:48 · 좋아요 취소 · 2

허보나 장강해 · 표창들이 잔지려요~ 7월 16일 오후 4:08 · 좋아요

이슬기님이 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8월 12일

[경춘마중물_1차 중간점검]
지난 7월 30일에 진행된 1차 중간점검 관련 사항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20140730_경춘마중물_1차점검.hwp
파일

다운로드 · 새 태권 업로드

좋아요 · 댓글 달기

27명이 읽음



결선 대회 및 시상

① 개요

- 일시: 2014년 9월 13일 (토) 14:00~17:00
-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지라운지
- 내용: 개회식, 팀별 프레젠테이션, 결과 발표 및 시상

시간	세부내용
14:00~14:20	사회자 인사 및 내외빈 소개 인사말 및 축사 2014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소개 영상 심사기준 안내
14:20~15:40	팀별 프로젝트 발표
15:40~16:00	휴식/심사 및 인기상 현장 투표
16:00~16:10	2014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스케치 영상
16:10~16:30	팀별 질의응답 시간
16:30~16:50	심사위원 총평/수상자 발표 및 시상
16:50~17:00	기념촬영

② 심사

심사위원 구성

- 서재경 / 심사위원장, 아름다운서당 교장, (전)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 고병옥 / 교보다솜이지원센터장
- 이경희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유병선 / 씨즈이사장, 경향신문논설위원
- 유시주 / 희망제작소 기획이사

심사기준

- 적합성 및 실행력
 - 아이디어를 적절하게 구현하였는가
 - 아이디어의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행계획과 과정, 수단이 적절하게 연결되었는가
- 확장성 및 사회파급성
 - 지속가능한 모델로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있는가
 -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가
- 혁신성
 - 아이디어 실현 방안이 기존의 방식을 보완하고 새로움을 제시하는가
 - 문제의식을 드러낸 방식이 돋보일 정도로 뛰어난가

- 완성도
 - 전체 계획 대비 구현 정도는 어떠한가
- 전달력
 - 발표 자료를 잘 정리했고 설득력 있게 발표했는가

심사내역

1등 (1팀)	상금 300만 원
2등 (1팀)	상금 200만 원
3등 (1팀)	상금 100만 원
장려상 (3팀)	부상
인기상 (1팀)	부상

※ 참고

- 최종 아이디어 6개 팀은 250만 원 지원금과 워크숍 등의 지원을 받아 10주간 프로젝트를 진행함.
- 인기상은 현장 관객들의 투표로 결정됨.

③ 심사결과

1등 (1팀)	꽃할매 (남한산성 꽃할매)
2등 (1팀)	City Farmer (장애인의 도시텃밭)
3등 (1팀)	보물찾기 (찾아가는 이야기멘토링으로 청소년에 비전을!)
장려상 (3팀)	세.바.카 (세상을 바꾸는 상담카페) 청춘마중물 (그림이 있는 나의 이야기) CLAW (동네변호사와 함께하는 법권리보증시스템)
인기상 (1팀)	청춘마중물 (그림이 있는 나의 이야기)

 2014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 스케치 영상: <http://www.makehope.org/?p=20972>



시니어드림페스티벌 1등_꽃할매 팀



시니어드림페스티벌 2등_ City Farmer 팀



시니어드림페스티벌 3등_ 보물찾기 팀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장려상_ 세.바.카 팀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장려상_ 청춘마중물 팀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장려상_ CLAW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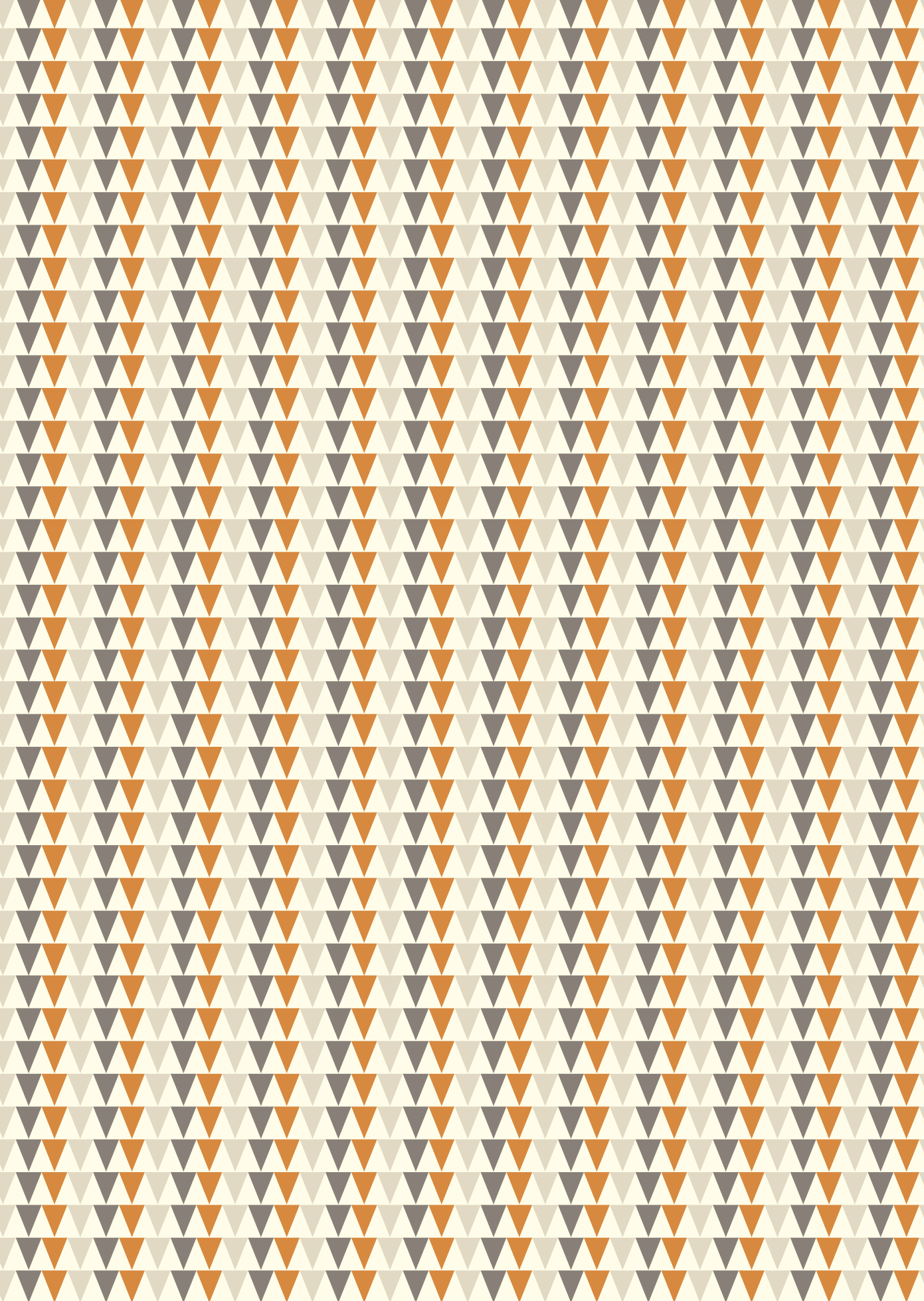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인기상_ 청춘마중물 팀



시니어드림페스티벌 결선대회 진행 사진







SECTION 3

총 평

참가자 평가 및 후기

총평 및 제안





총평

참가자 평가

이 보고서의 평가는 참가자들이 직접 작성한 후기 및 인터뷰,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① 시니어의 사회공헌모델 참여 기회 제공 및 모델 발굴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시니어들이 각자의 성향과 욕구 또는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아이디어로 시작된다. 최종 아이디어 팀으로 선정된 6개 팀 역시 개인의 꿈이나 소망에서 출발한 아이디어를 기획해서 각기 다른 사회공헌모델을 보여주었다. 사회공헌에 대해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사회공헌모델 발굴의 가능성 및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적합한 방식을 제시했다.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내가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주제와 딱 맞아 떨어졌다.
(중략) 구상에 머물러 있던 아이디어가 현실로 나와서 날아오른 순간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이 고민은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지난해만 해도 그저 꿈으로 남을 것 같은 일이었다.”

- 시니어 참가자 후기 중에서

7) 참가자들의 후기는 연재기사 형태로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http://www.makehope.org/?p=21289>, <http://www.makehope.org/?p=21411>
<http://www.makehope.org/?p=21614>, <http://www.makehope.org/?p=21709>
<http://www.makehope.org/?p=21822>, <http://www.makehope.org/?p=22194>

참가자들이 공모전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을 통한 경험 및 성과 등이 시니어의 사회공헌활동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끝났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돌맹이를 던지고 있다. ‘장애인의 도시텃밭 만들기 운동, 1평의 사랑 더하기 1만 원의 행복 텃밭’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하여 장애인 도시텃밭 1,000평 확보 운동을 시작했고, 이를 위해 펀딩과 착한 메주 프로젝트 사업을 후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행하는 동안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계속해서 보완해나간다면 우리 프로젝트는 더욱 의미 있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끝났지만 나의 프로젝트는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이 경험이 앞으로 아이디어를 확장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시니어 참가자 후기 중

“문턱 없는 도시텃밭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의 만남은 계속될 것이다.”

- 청년 후기 중

공모전 자체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기대보다는 힘들었다. (중략) 하지만 철저한 관리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울 수 없었을 것 같다.”

“이런 기획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영시니어나 베이비부머들이 많이 양산되는데, 젊은 청년들과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적)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략) 계속 이어지고 좀 더 나은 콘셉트와 아이디어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청년들과 시니어의 합작품이 완성되는 과정을 보면서 결코 시니어만의 꿈의 축제가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희망제작소에서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을 영구히 이어나가길 바라고, (우리의 결과물을) 토대로 좀 더 완성도 있는 페스티벌이 되기를 바란다.”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면 첫 모임이었던 것 같다. 첫 모임 때 다 같이 모여서 ‘잘해보자’란 마음이 계속 유지 되었으면 하고 바랐고, (프로젝트가) 생각처럼 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 있었다.”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을 통해) 할 수 있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었다. 이후 이 프로젝트가 지속된다면 저한테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횟수나 영향력으로 봐서 (힘든 일보다) 기쁜 일이 훨씬 많다.
힘든 것이 상쇄될 만큼 보람으로 돌아왔다.”

- 시니어 참가자 후기 중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장점은 시니어가 잘 할 수 있는 것, 청년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적절히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시도가 훌륭했다고 생각한다.”

- 청년 후기 중

② 세대 공감의 가능성 확인

실행 부분에 청년Doer가 결합해서 10주의 프로젝트 실행기간 동안 세대 간 협업과정이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협업이 원활하게 진행된 팀도 있었던 반면 갈등 과정을 겪은 팀도 있었다. 흥미로웠던 점은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었다. 시간과 노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점차 변화했다. 이는 시니어와 청년 세대가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대 간 접촉의 기회를 높임으로써 팀 갈등(세대 간 갈등) 해소 과정으로부터 세대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차례 진행된 인터뷰⁸⁾를 통해서 시니어에 대한 인식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청년Doer의 인터뷰 내용이다.

8) 인터뷰 대상 : 최종 아이디어 6개 팀, 총 27명(시니어 9명, 청년Doer 18명)

인터뷰 일정 : 1차 인터뷰(7/5) 시니어와 청년Doer의 첫 만남

2차 인터뷰(8/27) 프로젝트 진행 8주차

• 청년Doer 인터뷰 내용

7월 5일

- 시니어와 이야기할 기회가 평소에 없어서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다.
- 어머니뻘이기 때문에 불편한 감이 있었다.
- 고리타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

8월 27일

- 많은 대화를 통해 시니어들의 연륜을 느낄 수 있었다.
- 우리 팀의 팀워크는 시니어 선생님의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될 만큼 큰 역할을 해주셨다.

- 시니어는 젊은 세대의 생각을(본인에 비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낮게 보는 것 같다.

- 오히려 우리보다 에너지가 넘치고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하셔서 그런 점을 많이 배웠던 기회가 되었다.
- (양보를 통해) 서로가 조금씩 채워나가는 부분이 생긴 것 같아서 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다.

- 은퇴가 사회적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지원이 너무 없고 내가 시니어가 되었을 때 삶의 경험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 한 분 한 분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 내가 얻어가는 부분이다.
- 시니어의 현실을 알게 되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시는지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

7월 5일

- 청년들이 시니어와 소통을 점점 꺼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니어들이 일방적인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8월 27일

- 나도 나중에 시니어가 되면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프로젝트를 하면서 (시니어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다.
- 사회에 나가서 부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분들과 같이 일하게 되면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될 텐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미리 경험을 하게 되어서 예방 주사를 맞은 것 같다.

- 나에게 멘토해주시는 분들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 부모님과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

- 우리보다 커피를 좋아하고 은어도 사용해서 Young하다는 느낌, 재미있으시다는 느낌을 받았다.
-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고 이야기에 동참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재미있는 분이시구나, 개그감이 있으신 분이구나 알 수 있었다.
- 이분들을 통해 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인식 변화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한 청년 참가자의 후기이다.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이 끝난 지금, 그간의 과정을 돌이켜보니 느낀 부분들이 참 많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실행할 당시 느꼈던 의견 차이의 원인은 시니어와 청년 간 세대차가 아니었다. ‘의견 차이’라는 것은 시니어와 청년이라서가 아닌 청년 사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다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 실행과정에서 우리는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시니어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다. 이것을 보면서 시니어의 살아온 경험과 연륜,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기에 소중한 자산임을 깨닫게 되었다.

시니어들은 청년Doer와 만나기 전에 세대 공감 인식을 넓히는 사전워크숍에 참여하였다. 이 워크숍이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음을 시니어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시니어들의 경우에는 청년 세대와 달리 인식변화가 크지 않았다.

시작하기 전에(청년Doer와 만나기 전에) 몇 번의 사전워크숍을 가졌다. 청년들 하고 공감 문제를 많이 염려하셨는데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갔다. 긍정적으로 잘 할 수 있는데……. (중략) 그런데 과정을 겪으면서 ‘이러한 문제를 염려하셨구나’를 알게 되었고, 갈등과정을 겪게 되었지만 그게 계기가 되어서 빨리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

청년 세대와 어떤 점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까 예상을 해봤다. 처음부터 청년Doer에게 회계를 맡겼고 그에 대한 결정권을 주었다. (중략) 일정을 기획할 때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에게 선택권을 준 뒤 내가 ‘따라가겠다’고 했다.

- 시니어 참가자 후기 중

청년Doer와 협업이 프로젝트에 긍정적이었다는 의견을 비롯하여 세대 간의 접촉 및 갈등해소 과정이 세대공감의 가능성을 이끌어낸 점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좋은 청년Doer를 만난 것 같다. 항상 웃음과 재미가 있었고 청년들은 에너지가 있다. 리액션이 좋고, 웃어주고 박수쳐준 것들이 힘이 되었다.”

“젊은 세대의 시각으로 색다른 것이 나올 때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시니어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잘 보완해준 것 같다고 느꼈다.”

“팀워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아했다. 그런데 만나면서 깜짝 놀랐다.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었다.”

“청년Doer들의 개성이 독특했기 때문에 이 공모전이 끝나면 어떤 다른 공감대로 만날 수 있을지 기대된다.”

- 시니어 참가자 후기 중

총평 및 제안

① 시니어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대

시니어 참가자들은 시니어드림페스티벌 같은 공모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이는 그동안 시니어를 대상으로 해서 세대통합 내용을 포함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및 지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공헌활동에 욕구와 의지를 보인 시니어를 위해서 시니어드림페스티벌과 같은 사회공헌 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3년도에 비해서 시니어의 참여가 다소 저조했던 것은 모집 시기가 ‘세월호 사건’과 맞물린 시점이라 불가피한 부분이었다. 다만 이후에는 더 많은 시니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홍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② 세대 공감의 가능성 확인 및 세대통합 문화 확산

올해는 청년Doer의 연령을 30대까지 확대함으로써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세대 간 접촉을 유도하였다. 30대 청년Doer는 대부분 직장인이었으며,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하거나 팀 분위기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청년Doer의 연령 확대가 시니어와 청년의 세대 공감을 높이는 방안으로 적절해 보인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세대 공감의 필요성 및 협업의 방법 등을 안내한 사전 워크숍은 실제 협업을 할 때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 청년Doer 워크숍에서도 이런 사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청년Doer에게 시니어에 대한 사전 이해의 폭을 넓혀서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함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진행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을 겪은 팀도 있었으나, 실행 기간 동안 질 높은 접촉을 통해 갈등이 완화되어갔음을 인터뷰 및 후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갈등은 세대 공감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 또한 공감의 중요한 과정임을 알 수 있다.

③ 프로그램 운영 관련

2013년도 사업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 및 평가가 높아 전반적인 운영과정은 2014년에도 유사하게 기획하였다. 몇 가지 새롭게 시도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 워크숍의 강화이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를 제안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중간 워크숍’을 추가 기획하였다. ‘중간워크숍’을 통해 세대 공감 관련 기본교육 및 2013년도 참가자와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디어를 더욱 세밀하게 다듬고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청년Doer 연령대의 다양성이다. 2013년도와 달리 30대 청년Doer의 참여는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유도한 점에서 바람직했다. 단, 직장인일 경우 팀 내 시간조율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이후 사업에서 세밀하게 기획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셋째, 자문단의 역할 확대이다. 2013년도와 달리 최종 심사를 할 때 자문단의 의견을 첨부하였다. 참가팀의 전체 프로젝트 수행과정을 코칭한 자문단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어 최종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한편,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 외에 두 차례의 중간점검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프로젝트의 실행방향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후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을 진행할 때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페스티벌 분위기 강화이다. 최종 결선대회에서 각 팀의 등수 선정 방식은 참가자의 프로젝트 진행과정보다 최종 결과물에 집중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모전의 취지를 유지하고 페스티벌 분위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선대회의 진행방식 및 등수 선정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자문단의 ‘책임 멘토링제’이다. 참가팀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운영진 외 자문단과 긴밀한 연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문가와 개별 멘토링제는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작용될 것이다. 자문가는 멘토로서 팀을 담당하기 때문에 각 팀의 원활한 진행 및 내용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2013년도에 이어 2회째 진행한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시니어의 사회공헌 활동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위와 같이 세부 사항을 보강하고 안정적인 운영과정을 확립하면서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4 시니어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시니어드림페스티벌

발행처 희망제작소

발행일 2014년 12월 30일

기 획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센터

<http://happysenior.makehope.org>

주 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27(평창동, 비전빌딩 2-4층) 110-847

www.makehope.org

전 화 02-3210-0909

팩 스 02-3210-0126

